

경북도,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스마트팜 상담·심포지엄 (2024.10.24.)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4~26일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주관으로 네덜란드 전문가를 초청해 원예 재배 상담과 심포지엄을 벌인다.

이번 상담을 위해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CEO를 비롯해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 3명이 한국을 찾았다.

첫 날에는 시설원에 재배 전문가인 피터 반 윌 씨가 강의 후 혁신밸리 내 입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과 1대 1 스마트팜 재배 기술을 전수했다.

그는 특히 혁신밸리 임대팀의 온실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환경제어기의 정밀 제어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 농업인은 "정밀한 환경제어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네덜란드 전문가가 내가 경영하는 온실에서 직접 상담을 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만나 복합환경제어기, 센서, 로봇 등 제품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상담을 한다.

경북도는 이번 상담과 함께 26일에는 스마트농업 국제심포지엄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와 국내 스마트팜 온실 관리 기술을 서로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작물 재배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지난 1월 경북도는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의 한국 플랫폼으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WHC KOREA)를 개소한 바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통한 네덜란드와 교류 기회를 확대해 경북의 농업인들이 네덜란드의 선진 기술을 더욱 쉽게 접하고,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소주 등 경북 전통주, 해외 4개국과 수출 업무협약(2023.10.22.)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도와 안동시는 미국, 태국,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 4개국 바이어와 안동소주를 포함한 전통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 in 안동' 개막식에 앞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한임섭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장, 권용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중서부협의회장, 제니 리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조병선 태국 난다 트레이드 대표, 렌스 스와인 뉴질랜드 Hi I.Q 대표, 써니 리아오 대만 한센 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기관은 안동소주를 포함한 경북 전통주 해외진출 및 각 단체 상생발전을 위해 전통주의 국가별 홍보·마케팅, 수출지원 및 현지협력, 수출촉진에 관한 교류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소주를 포함한 경북 전통주는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 잠재력을 가진 섬김과 배려가 담긴 전통문화"라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 술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수출 지원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 ‘희망의 울림, 하나의 소리’…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성료(2023.10.23.)

영주시는 지난 21일 선비세상에서 개최한 ‘2023 세로토닌드럼 페스티벌’이 클럽 창단학교 학생 단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울림, 하나의 소리’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경쟁 부문 전국 18개교, 비경쟁 부문 6개교 드럼클럽이 참여해 총 24개교 400여 명이 함께했다. 또한 6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댓글 이벤트와 합동공연 참여를 통해 교류와 화합의 무대를 장식했다. 이날 세로토닌드럼클럽 청소년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신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복돋웠다.

경연 결과 충남 부여여자중학교(교사 정해산)가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2012년 창단한 부여여자중학교의 경연 작품의 제목은 ‘소녀의 햇불’로 유관순 열사가 3.1만세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모듬북, 소리북, 판소리로 구성한 작품이다.

세로토닌드럼클럽은 영주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07년 영주시를 찾은 이시형 박사가 영광중학교 모듬북 동아리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들이 모듬북 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이끌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세로토닌드럼클럽이 시작된 영주시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다 함께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펼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형 (사)세로토닌문화 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건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듬북을 두드리는 타악연주의 규칙적인 리듬운동이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분비의 활성화로 이뤄진다는데 기반해 청소년 정서순화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세로토닌드럼클럽’은 현재 전국 200개 중학교,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세로토닌드럼클럽은 활동 누적 인원이 2만 명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드럼클럽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해소, 정서순화, 팀스피릿 강화, 자존감 및 리더십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드럼클럽 청소년들은 재능기부 공연을 통한 나눔과 배려, 소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나주-구미교육 2차 교류 실시(2023.7.10.)

[경상매일신문=김도섭기자]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6~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나주 일원에서 협력과 상생의 영호남 교육교류 증진을 위해 '2023 나주-구미 교육 교류(2차)'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일 나주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강영구 부시장, 전남도 의회 이재태·김호진 의원, 조정자 전남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조정자원장, 양창완 나주도서관 관장, 최은숙 학부모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환영했으며,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이성희 교육장 외 123명의 교육지도자가 참석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나주이화유치원, 빗가람초등학교, 노안남초등학교, 빗가람중학교, 봉황고, 나주이화학교를 둘러 보며 특색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영호남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두 지역 교육장의 환영사와 답사, 주요 내빈의 축사, 해금공연, 2023 나주 교육 소개가 이어졌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별 업무별 협의와 교육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7일에는 세계 최초로 구축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AI수업분석실에 대한 강의와 시연을 보며 단위시간 중 학생의 활동을 분석해 교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나주 읍성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를 체험하며 영호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함께 배우며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성희 교육장은 “지난 5월 구미에서 개최했던 1차 워크숍과 이번 2차 워크숍을 통해 구미-나주 간 활발한 교육 교류를 통해영호남 지역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과 상생의 교육교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美 뉴포트비치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재확인 (2023.10.26.)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현지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시청에서 노아 블롬 시장, 데이비드 최 뉴포트비치 영화제 파트너와 만나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두 지자체가 체결한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두 지자체는 지난해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문화·경제 교류 확대 ▲기타 형태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영화제 개최와 국제 교류로 영화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자 경북도가 추진하는 신개념의 영화제다.

이철우 도지사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위한 발걸음에 뉴포트비치시에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북은 K-팝과 무비 등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문화의 스토리가 탄생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한류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한류 콘텐츠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고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이 준비 중인 메타버스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뉴포트비치시와 뉴포트비치 영화제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아 블롬 뉴포트비치 시장은 "뉴포트비치시는 경북도의 의욕 넘치는 메타버스 영화제 계획을 지원한다"며 "뉴포트비치 시민들은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경북도 메타버스 영화제의 성공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장은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한미 양국의 도시와 지방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홍보하는 것과 함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인 미래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북도와 뉴포트비치 영화제 조직위는 이날 면담의 후속 조치로 영화제 조직위 간 업무협약 체결, 영화제 출판작 IP 확보, 메타버스 영화제 공동 개최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약에 돌입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면담이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의지가 국제적으로 한 번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타버스 영화제가 디지털 시대 한류 콘텐츠 확산의 선도모델이자 국제적인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방문해 임업 정보 교류 (2023.10.25.)

경북 포항시는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ORKOOP) 소속 간부와 튀르키예 농림부 및 산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최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숲마을을 방문한 튀르키예 방문단은 임산물 전시판매장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숲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산림문화광장, 숲비폐식당, 목재자원화센터 등 산림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포항시산림조합의 다양한 특화사업에 대해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산림조합중앙회와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의 임업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상호협력 체결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양국 임업 교류를 통한 임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에르데م 카플란(Erdem Kaplan)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 대표이사는 다양한 산림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케난 악두만(Kenan Akduman) 튀르키예 산림청 국장은 임업 청년단과 청년창업혁신단 창단 등 산림산업의 고령화 해소를 위한 포항시산림조합의 노력과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운영에 놀라움을 표했다.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은 “2017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숲마을을 조성한 후 전국 142개 조합 중 으뜸가는 선진 견학지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번 튀르키예 방문단과의 산림 분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포항시는 우리나라 산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포항시산림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의 산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임업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